

사순 제4주일

제 1 독서 : 여호 5, 9a. 10-12

제 2 독서 : 2고린 5, 17-21

복 음 : 루가 15, 1-3. 11-32

순정이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루가 15, 21).

강론

“아버지께 돌아가자”

김진철 신부 / 둔율동 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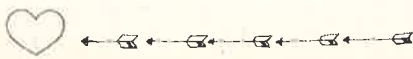
어떤 가게나 가정을 방문했을 때 십자고상이나 성모상을 보게 되면 참으로 반갑다. 물론 신앙을 외적인 표지로만 판단할 수 없지만 열심히 교우의 가정은 가난해도 행복하게 보인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면서 길에다 겹옷과 나뭇가지를 깔아 놓았다. 주님을 모신 나귀였기에 사람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던 것이다. 많은 나귀 중에 선택되어 예수님을 모신 그 나귀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 신자들도 예수님을 모신 나귀와 같다고 생각한다.

영광과 구원, 기쁨과 부활 등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오는 것이다. 재물, 권력, 명예가 아무리 크다 해도 예수님과 떨어져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나귀처럼 미친한 사람이라 해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지혜롭고 복된 자이다.

오늘 복음은 유명한 탕자의 비유이다. 작은 아들은 삶에 대한 즐거움, 모험, 야망, 욕망으로 길을 떠난 아들이다. 하느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작은 아들이다. 그러나 하느님을 떠나면 결국 비참하게 되고 파멸에 이른다. 깊은 구렁에서 제정신이 들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은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돌아온 탕자를 나무라지 않고 좋은 옷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살진 송아지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처럼 하느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 당신을 떠나서 죄와 죽음의 길에 있는 이들이 당신께 돌아오기만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다.

회개의 사순절에 우리도 작은 아들처럼 하느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지난날을 청산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하겠다. 회개하고 주님을 우리 삶 안에 모실 때 진정한 행복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소리

“꽃피는 봄이 오면”

요즘의 유행가는 하나같이 가성을 써서 한 대목씩 간드러지는 달콤한 분위기의 이른바 발라드인데 중고생 소년들의 취향에 맞아야만 하게 되어 있다.

노래는 시대와 사회를 비취주고 또 이끌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일찌기 공자는 노래의 가락을 들어보면 그 나라의 오늘과 장래를 알 수 있다고 했던 것이다.

90년대를 휩쓰는 이저런 풍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한다. 이 사조의 특별한 점이려면 진지성의 결핍이라는데 이를테면 코메디에서마저 사회비평의 주제가 다루어지는 것, 그러나 그것이 웃음으로써 말하자면 가볍게 한바탕 해넘기고 그것으로 그만인 것이다.

고뇌도 성찰도 없는 사회와 세대가 중심인 세상에 살아야 하는 신앙인이나 선의의 사람들이 이럴 때 취해야 할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

노아 또는 요나의 그것과 같아져서 구원의 뱃길을 떠나거나 고래뱃속으로 도망가게 될 수라도 있는 세대인가, 지금 이 세대가?

봄이 왔어도 모든 것이 공해에 젖어 더러운 상태인, 가볍게 즐기는 방식으로만 다들 들뜬, 컴퓨터 같은 조작 기능적인 삶으로 날이 뜨고 새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언제나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했던 것으로 추억되는 지나간 70-80년대가 아득히 멀게 느껴지는 것은 지금 우리가 놀랄게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묻게 되었기 때문인가?

이제부터는 사순의 끝을 향해서 처참한 인간존재를 부활의 못 알아들을 신비 쪽으로 이끌어가볼 일. 그래서 종말이 어제 지나갔음을 뒤늦게나마 알아차리고 뉘우치는 울음을 울게 됐으면, 베드로의 닭소리와 함께... [종]

순정이 산책



어느쪽이 지역감정의 골이 더 깊은가!

성서교실 ③

“성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경은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다. 더구나 구약 성서의 가장 오래된 부분은 3,000년 전에 기록되었다. 20세기의 사람이 중세(中世)에 대해서도 시대적·정신적 간격을 뚜렷이 느낀다면, 더구나 구약성서가 기록된 시대와 현대 사이에는 2·4배, 아니 5배나 더 큰 간격이 가로놓여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

성경의 세계는 고층건물, 초음속 비행기, 우주여행, 컴퓨터 등으로 상징될 수 있는 현대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이다. 성경에 보고되고 있는 사건들은 흔히 적막한 광야에서 일어났다. 어떤 때는 저수지(貯水地)나 목초지(牧草地) 때문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일정한 곳에 정착하여 부유한 생활을 하기도 했으며, 고대 오리엔트(近東地方) 도시문화의 호사(豪華)를 누린 사람들이 유목민이나 반유목민의 곁에 살기도 했다. 다행히 최근 백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팔레스티나, 이집트의 사막에서 조예깊은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된 많은 자료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2,000년 이상이나 오래된 성경의 생소한 세계를 오늘날에도 생생하게 눈앞에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흙냄새나 고대 근동지방의 분위기,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표현양식에 대해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테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 본문의 서술 형식과 서술 내용(말하고자 한 본뜻)을 구별하려면 그 문학적 표현방법을 식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어낸 이야기나 진실처럼 들리는 글에도 역사적 사실의 핵이 깃들여 있기도 하고, 윤리적 명령이 구상적(具象的)이고 쉽게 감명을 주는 비유 형식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성서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성경에 포함되고, 표시되어 있는 하느님의 계시(啓示)는 성신의 영감(靈感)으로 기록된 것이다. 하느님은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 인간을 선택하셨고, 자기 능력과 역량을 갖춘 그들을 이용하시어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이 활동하셨고, 그들이 참된 저자로서 하느님 자신이 원하시는 것만을 모두 다 기록하셨다. 그러므로 성경 해



유대인들의 초막절

석자는 성경 저술가가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 시대와 문화의 조건하에서 또한 당시에 사용하던 문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려 했고, 또 사실 표현한 그 뜻을 알아내야 한다. 성경 저술가가 글로써 주장하려 한 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술가 시대에 느끼고 말하고 이야기하던 통속적이고 자연적인 방법과 당시에 인간 상호 거래에 흔히 사용하던 방법을 엄격히 알아보아야 한다”(공의회 문헌 계시헌장 11-12항).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히 요즈음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겨난 많은 신흥종교인들로부터 성경의 내용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는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대화를 회피하거나 그들의 달변(達辯)에 속아 타종교로 전향하기도 한다(예: 여호와증인-70%가 가톨릭 신자).

이제부터라도 성서를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교회의 지도자(성직자, 수도자, 교사 등)들에게 문의하고 성서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

새 싹 화원

동양란 전문

유제형(바오로)
김영근(크리스티나)

☎ 72-9044

(호)012-684-4876

대장·항문병(치질) 전문치료

서울의원

-레이저에 의한 무통 수술로써
수술 후 평상 활동 가능-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상담전화 75-0550

결혼·약혼·파티복·남복
고려주단 한복싸롱

전광원(마르코)

김소피아

전주시 완산구 교차동 1가 1번-1

신혼·약혼·장 굴복

☎ 88-1902

샤넬안경원

이순구(도미니코)

정병채(실비아)

☎ 54-9525

이리역 원광대 버스

승·하차장 앞

5분 교리 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느님”

어느 날 아침미사 때였다. 독서 후 응답 시편을 읊고 있는데 내 뒤에 계신 할머니께서 “당신 백성 괴롭히는 주님이 아니신가” 하고 후렴을 큰소리로 반복하고 계셨다. ‘괴롭히는 주님?’ 귀가 쫑긋해져서 다시 책을 들여다 보니 “당신 백성 괴롭시는 주님”이었다. ‘괴다’는 특별히 아끼고 마음에 품어 사랑함을 뜻하는 옛말이다. 괴롭시는 주님이 괴롭히는 주님으로 둔갑해버렸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하도 심오하여 알아들을 수 없는 때가 많기 때문이다. 까닭없이 고통을 겪을 때는 하느님을 원망하게도 되나 지나고 생각하면 그게 다 섭리였고 커다란 사랑의 손길이 있었음을 깨달을 때가 많다.

우리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말과 글로서는 다 표현해낼 수가 없다. 손수 치으신 인간을 당신 자신의 생명과 친교에 참여시키고자 부르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마치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성실한 남편처럼, 그리고 아내가 성실치 못해도 계속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 자비의 약속에 끝까지 성실하시다. 주님이 나를 괴롭힌다고 여겨질 때 그 괴롭힘이 곧 괴롭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주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너는 말하였었지. 여인이 자기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이사 49, 14-15).

* 참고 자료 : 러시아에서 그분과 함께(책) · 피고인석의 하느님(VHS, 28분)

요심이 (973) 김병오



교 구 소 식

1. 이병호 주교님 성성 2주년 : 4월3일(금)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2. 수도자 성체분배 교육 : 4월2일(목) 오전10시 가톨릭센터.
3. 가톨릭 언론인회 모임 : 4월 1일(수)
4. 가톨릭 방송인회 모임 : 4월 5일 오전 8시30분 가톨릭센터.
5. 여성연합회 총회 및 본당 여성 단체 임원 교육 : 3월30일(월)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강사-지정환 신부, 대상-여성 부장·단체 임원, 회비-4,000원.
6.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피정 : 4월2일(목) 10시-12시30분 덕진 성당, 강사-강인찬 신부.
7. 성모의 기사회 : 4월4일(토) 오전10시 효자동 성당.
8. 전주교구 M.E.가족 사순절 십자가의 길 : 4월4일(토) 오후2시 치명자산 입구.

- **성소모임** 성바로말수도회 : 4월5일 오후2시 성바로 서원 2층 (0652)252-3398.
 살레시오수녀회 : 4월5일 오후2시 연지동 성당 수녀원 (0681)33-2578.
 사랑의 씨튼수녀회(피정) : 4월5일 오후2시 동산동 성당 수녀원 (0652)212-3233.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생각을 동료들과!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아는 대로 동료들과 얘기해보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며 주위 사람에게 널리 알립니다.

<p>호남 베아링 공구, 베아링, 체인, 노타리칼, 오일실 한동오(레문도), 장영례(막달레나) 부안읍 선은리 225-1 ☎ 점포 (0683)82-6022 자택 (0683)83-3146</p>	<p>호남 벨트 뿌레, 벨트 ☎ 점포 (0683)84-9696 유압호스 제작 고압호스, 와이어 한동근(바오로), 이정순(안나)</p>	<p>형제열쇠 APT 보조키, 빨래건조대 각종 열쇠 수리 복제, 조립식 선반 약촌 신일, 동신APT 입구 권병문(필립보), 광영애(아녜스) ☎ (0653)841-5626</p>	<p>대신 씽크 각종 씽크대 판매 및 수리 공장 직영 송재준, 박만순(로사리아) 공장 ☎ 213-2612 지택 ☎ 211-2515 동산동사무소 앞</p>
---------------------------------------------------------------------------------------------------------------------------------------	-------------------------------------------------------------------------------------------------------	-----------------------------------------------------------------------------------------------------------------------------------	----------------------------------------------------------------------------------------------------------------------

사무장 구함

1. 제출서류 : 이력서, 1종 운전면허증 사본
2. 자격 : 25세 이상 5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남자
3. 연락처 : (0658)43-0880
원형 성당 사제관

* 생활속에 동화를 불러냅니다*
원목가구 · 생활용품

미지트 중앙동대리점

관동로 진선미 꽃집 옆
☎ 84-8725
범 덕 배(대표)

현대 미용학원
미용 · 피부, 본과, 연구과

☎ 86-221, 254-3003
김금순(데레사)
신북동 제일예식장 맞은 편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랭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노 송 남
 1. 사순절 특강: '프레온과 지구보존' 금요일 저녁미사 후
 2. 열세자 특별교리 10주간: 매주수요일 저녁미사 후 3. 병자봉성
 체: 금요일, 환자가정은 미리 사무실에 연락바랍니다. 4. 사목
 화일레터: 금요일 저녁미사 후 5. 반희정모임: 목요일 오전10시
 30분 6. 저녁미사시간변경: 4월1일부터 저녁7시30분으로. 7.
 성시간: 목요일 저녁미사 8. 레지오 강부교육: 토요일 후2시 9.
 판공성사 일정: 4.7(화)-남노송동구역, 4.8(수)-중노송동1
 구역, 4.9(목)-중노송동2구역, 4.10(금)-중노송동3구역 4.
 11(토)-중노송동4구역, 4.14(화)-인후구역(동진구역포함)
 4.15(수)-인후2구역(가타구역포함) 10. 지난주 사랑의 나눔현
 금: 1,613,000원(누계: 2,121,000원) 11. 금주청소: 중노3,4
 만 차주청소-중노5,6만
 지난주 봉헌금: 836,700원 교무금: 1,901,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 인
 1. 판공성사: 4월2일(목)-태평동1~7, 다가동1~5, 완산동4월3
 일(금)-전북동1~4, 중앙동1,2, 고사동1,2(후7시~후8시30
 분) 4월4일(토)-학생 및 기타(후4시30분~후6시)
 2. 사순절 패지 저공평에 관심을 갖읍시다.
 (안팔은 신문 사무실에 있습니다)
 3. 회합: ①자모회(4월2일 오전10시) ②대건회(5일 공식미사 후)
 ③사목회(5일 저녁미사 후)
 "축"결혼(5일)12시 신랑-김요셉군 신부-방 켈미양.
 금주전례: 유두석 독서-김홍현씨 부부 봉헌-분영주씨 가족
 차주전례: 유복규 독서-정승환씨 부부 봉헌-서맹규씨 가족
 지난주 봉헌금: 633,270원 교무금: 1,777,0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 동 욱
*** 오늘은 사순제4주일: 돌아온 땅과 우리의 삶은?**
 1. 성모회: 공식미사 후 2. 교리교사들을 위한2차현금: 모든미사
 중에
 3. 성서읽기: 출애1장~11장 4. 청소년사: 평화의모후Pr
 5. 푸리아: 다음주 공식미사 후
 6. 교무금 납부의 날: 매월첫주(다음주) 7. 사목회: 4일(토) 저녁
 미사 후
 8. 전신사 십자가의 길: 3일(금)오후3:00, 치명자산, 십자가의길
 후 미사있음.
 9. 금주전례: 해설-이미숙 독서①정광설 ②오귀남
 봉헌-유순천, 박귀철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이육성 ②이석남
 봉헌-김단오, 김중석씨 부부 지난주 봉헌금: 283,460원
 10. 아치에스 행사: 31일(화) 오후3:00 교무금: 32,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용
*** 오늘은 사순제4주일! (성당 외부 환경정리에 신자들의 솔선수범
 바랍니다.)**
 1. 회의: ①반장회-다음주일(4월5일)공식미사 후 ②푸리아-다
 음주일(4월5일)오후2시 ③청년회-4월5일(일)저녁미사 후 ④
 자모회-4월8일(수)오전10시30분 ⑤사목회-4월8일(수)저녁
 미사 후 2. 알림: ①아치에스행사-3월29일(오늘)오후2시(레
 지오단원박점없이참석바람) ②부활판공성사-3월31일(화)-4
 월15일(수)매일미사전후(일요일, 월요일은제외)이번 사순절동
 안 봉화와 경개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빕니다. ③예비자 집
 중교리-4월7일(화)-4월10일(금) ④영세식-4월18일(토)오
 후3시, 영세자와 대부, 모든 30분전에 집결바람 ⑤미사시간변경
 -4월12일(일)부터새벽미사 새벽5시, 저녁미사후8시로변경.
 지난주 봉헌금: 697,450원 교무금: 778,000원

*** 용마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점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사순 4주일-사랑을 실천합니다. 가장 작은일부터 찾아봅시다.**
 1. 사목회, 오션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서공부 예비소식: 오늘 공식미사 후
 3. 반정모임: 4월3일(금) 오후2시 4. 사목회: 4월3일(금) 오후8
 시
 5. 부활영세반 집중교리: 4월1일~4일(저녁7시30분)
 6. 유아세례 신청바랍니다: 4월5일까지(유아~국교2년까지)
 7. 가정방문: 4월1일(수)-2구역 3만, 4만 2일(목)-오후 2구역5
 만
 8. 교회살림에 힘조. 관심기술여 주시기바랍니다(교무금)
 9. 예비자, 전일교우, 전심으로 환영합니다.
 10. 청소년사: 3구역 3만, 4만.
 지난주 봉헌금: 723,400원 교무금: 1,299,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삼 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1. 금주: ①자동차축성식(공식미사 후) ②청년연합회임시회의(저
 녁미사 후)
 2. 판공성사: 미사 전후30분, 장소: 사제관 회의실 * 합동판공성
 사는 없음.
 3. 가정방문: 31일(화)-남노송동1,2,3,4만 4월1일(수)-서교동
 1,2,3,4만 2일(목)-전동9만, 중앙동, 경원동.
 4. 성가정회: 4월1일(수) 오전11시.
 5. 성체강복 및 조배: 2일(목) 오전10시. 6. 병자영성체: 3일(금)
 7. 짧은이피정: 4일후9시~5일전7시까지 대상: 본당청년모두 장소
 : 본당 8. 차주: ①울드레아(공식미사 후) ②계속극라라형
 제회(오후1시 30분) 지난주 봉헌금: 1,794,71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이 완 규

경 심전 건축을 위한 바자회: 5월1일~4일 전동성당 기증품
 은인을 구합니다. 1.5%, 1%, 프라스틱 공병 수집
 1. 사목회 심일 위원회: 3일 후8시, 건축 추진 위원연석
 2. 부활 판공성사: 본당-6일 후7시, 공서-31일 양생 유폴터(조
 장년), 2일-마음리(고복기), 3일-평촌, 광곡(이문자)
 3. 사순절 특강: 30일 후7시 오후연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4. 성시간, 성체강복: 2일 후7시30분, 7시부터 십자가의 길
 5. 유아세례: 4일 후2시30분, 신청서를 사무실에 미리 접수
 6. 여성분과 교육: 30일 전9시30분, 임원전원 출석, 샌더3층.
 7. 판공성사료 배부: 29일 구역 반회장은 각가정에 전달바람.
 8. 회의: 부녀회-1일 어머니미사 후, 푸리아-5일 후2시30분.
 지난주 봉헌금: 819,140원 교무금: 1,190,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 M.B.W 교육: 3월30일(월)부터 4월3일(금)까지 오후7시30분
 에서 10시까지입니다(많은 참여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말씀의 전례, 도입, 현실분석, 하느님계획
 (화요일): 복음적 식별, 하느님백성의 책임, 현신미사
 (수요일): 사건의 신비인 교회, 대화의 5단계, 하느님 중심의 태
 도
 (목요일): 형제애, 화해의 빠스카신비, 일치미사
 (금요일): 새 교회상, 활동계획, 파견미사
 금주전례: 한병갑 독서·봉헌: 최정순·정병렬
 차주전례: 이완자 독서·봉헌: 장정신·박영근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 석 회
 FAX 223-3824 사목회장이 동 선
*** 오늘은 사순제4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증반을 맞으면서 죽음을
 깨운 주님의 심정을 생각해보았는가? 우리는 매일 그분의몸을
 깨물어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왔는가? 내가 받는것인가? 이웃
 을위한나눔인가? 주님이 죽는것이어니고 내가죽는다면 무슨유
 언을남기겠는가? 남김유언이 없다면 주님에대한 생각이라도
 깊이해봅시다. 모임안내: 사목회-4월3일후8시, 애령회-오늘
 공식미사후(교육관)많은참석바랍니다. * 부활판공성사-4월1
 일부터매미사30분전후로(1일-성당주반, 효동마을, 효자마을,
 협동은성) 2일-광진A, 서부거성, 효자1단지, 애그린, 공작)3일
 -효자동(상산교부근)송정, 목화A 4일-쌍용1,2단지 5일-세
 경, 삼천주택) 6일-효자2단지, 삼천주공1,2단지) 다음주에 공지
 합니다. 봉성제: 다음주 화요일10시부터(사무실에접수바람) 유
 아세례: 오늘4시. 지난주 봉헌금: 1,257,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익 도
*** 나눔의 주일입니다.**
 1. 요셉회: 공식미사 후 2. 여성분과회: 3(금)10시미사 후
 3. 판공성사: 31(화)오후2시-롯데6,8만 저녁8시-롯데7 1(수)
 한신3,4 저녁한신1 2(목)오전-한신5 저녁-삼호1,2만 3(금)
 오전-한신2 저녁-삼호3,4,4. 자모회 단합대회: 30(월)오전10
 시 본당에서 출발 장소: 모악산 회비: 2,000원
 차주모임: 푸리아
 신축현금 봉헌액: 520,000원 폐품충수입: 1,332,070원
 금주전례: 해설-박명래 독서①임혜두 ②윤경숙
 기도①장태기 ②최정희
 차주전례: 해설-임장수 독서①전정철 ②이영례
 기도①황인용 ②박규자
 지난주 봉헌금: 1,229,880원 교무금: 3,251,000원